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출범, 전문인력 1만명 양성 첫발	1
江原日報	02면	강원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본격 시작	2
江原日報	23면	동계스포츠 메카 강원서 빙판·설원 위 감동 만끽	3
江原日報	05면	"빈자리 없어요" 공공기관 '주차 전쟁'	4
江原日報		[포토뉴스]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정기총회	5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사회문화위, 강원FC 시즌권 구매 릴레이 동참	6
江原日報	23면	강원FC 시즌권 릴레이 도의회 사회문화위 동참	6
강원도민일보	02면	"강특법 특례 기한 내 활용 모색을"	7
江原日報	02면	"올 6월 시행 강원특별법 구체적 홍보 필요"	8
스포츠서울	온라인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강원 산불방지 대책본부 상설 조...	9
엔사이드	온라인	박기영 위원장, "상설 「강원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주장...	10
시사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련 ...	11
정도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련 ...	12
설악신문	온라인	"집행부·의회, 존중·신뢰하며 의무 다해야"	13
설악신문	온라인	원미희 도의원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발의	14
강원도민일보	20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 정기회	15
江原日報	27면	견고하고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논의	15
강원도민일보	17면	화천군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확정	16
江原日報	22면	화천군의원 의정비 인상	16
江原日報	22면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27일 개관	17
강원도민일보	13면	강릉시청 일대 120면 규모 주차장 만든다	17
강원도민일보	01면	의료공백 막아라...지자체-지역 의료기관 대책 마련	18
강원도민일보	02면	ITX-마음 승차율 저조 손실부담 우려	19
江原日報	02면	기회발전특구 '그림의 떡' 되나	19
강원도민일보	04면	강릉·동해·삼척에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20
江原日報	16면	춘천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유치전 돌입	20
강원도민일보	13면	강릉 산간지역 70cm 눈폭탄 제설작업 총력	21

江原日報	19면	사흘간 50cm 폭설 ... 인력 550명 투입	21
강원도민일보	05면	'허리까지 쌓인 눈' 산간마을 고립·도로 통제 속출	22
江原日報	01면	69cm 폭설에 ... 정전·고립·낙상·교통사고 속출	2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청탁 채용비리 경종 울리길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 자영업 16만명 붕괴 ... 대책 없나	24
江原日報	25면	[사설] 與 도내 경선, 정책·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해야	25
江原日報	25면	[사설] 외국 관광객 찾지 않는 관광, 경쟁력 키워야 할 때	26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3일 (금)

종합 02면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출범, 전문인력 1만명 양성 첫발

강원대 등 도내 7개 대학 참여
40명 입학 3과목 온라인 수강

강원특별자치도가 22일 반도체 공유대학 입학식을 열고, 2031년까지 강원형 반도체 전문인력 1만명 양성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도는 이날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정광열 도경제부지사, 김현영 강원대 총장,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첫 입학식을 개최했다.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에는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연세대(미래캠퍼스), 한라대, 한림대 등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한다. 3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1학기부터 수강생 40명을 대상으로 3개 정규과목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일정 학점(부전공 21학점·복수전공 36학점) 취득 시 강



강원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본부장 이희제)는 22일 교내 60주년기념관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현영 총장,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

원형 반도체 융합전공 학위를 제공한다. 방학기간에는 반도체 실습 프로그램과 강원도 반도체 동아리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강 학생은 3

학점당 최대 50만원(학기당 최대 200만원)을 받는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다. 국비를 확보해 반도체 교육센터를 만들었고, 각 대학 총장님과 반도체 공유대학을 시작했다"며 "강

원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장학금 지원과 실험과 실습 등 전국 최고 수준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취업"이라며 "계약

학과를 늘려가면서 기업을 하나 하나 접촉해 취업 보장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영 강원대 총장은 "도지사 1호 공약인 반도체 산업을 강원도에 주력 산업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반도체 공유대학에서 (역량을) 갈고 닦으셔서 강원 반도체 산업을 멋지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주권의 핵심이 됐다"며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은 강원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산업을 미래 주요 먹거리로 꼽은 강원도는 반도체 공유대학을 중심으로 인재 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는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과 함께 테스트베드, 부지를 조성해 일군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게 최종 목표다. 김덕형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입학식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입학식이 22일 강원대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에서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김용승 가톨릭관동대 총장, 유만희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내빈과 입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본격 시작

반도체 공유대학 입학식 개최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첫 입학식(본보 지난 14일자 2면 보도)이 22일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반도체 공유대학에는 주관대학인

강원대를 비롯해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한림대 등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며 입학식에는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김현영 강원대 총장, 김용승 가톨릭관동대 총장, 유만희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65명의 학생 등이 참석했다.

3월 개강하며 디스플레이공학(상지대), 반도체박막분석론(강원대), 메모리반도체소자(강릉원주대) 등 3개 과목이 개설된다. 2학기에는 3~4과목이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수강을 통해 부전공 21학점, 복수전공 36학점을 기준으로 강원형 반도체 융합전공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또 여름 계절학기가 시작되는 올해 7월부터는 상지대 임시교육센터

에서 오프라인으로 반도체 실습과정을 운영해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아직도 대다수가 반도체는 수도권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도체 산업 불모지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 그간 반도체 교육센터 및 3대 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4대 거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와 7개 대학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1년여간 고민했고, 그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장학금 지원, 전국 최고 수준의 실험 실습, 취업까지 함께 할 테니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최첨병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4년 02월 23일 (금)

스포츠 23면

江原日報

동계스포츠 메카 강원서 빙판·설원 위 감동 만끽

제105회 전국동계체전 막올라

평창 그린피아콘도서 개회식
전국서 4,278명 선수단 참가
강원도 452명 종합 2위 목표

국내 최대의 동계스포츠 축제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2일 평창 그린피아콘도에서 개회식을 열고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춘천, 강릉, 평창, 정선 등 동계스포츠의 메카인 강원특별자치도가 단독 개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선수단 4,278명(선수 2,740명, 임원 1,538명)이 출전해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루지 등 8개 정식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권혁열 도의장, 대한체육회 유병진 부회장·윤성욱 사무총장, 양희구 도체육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 김상하 삼척시체육회장을 비롯한 도 시·군체육회장, 오성배 도 부교육감, 신달순 모나용평 사장, 심재국 평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전역찬 도경제인연합회장, 이건설 도 노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회기와 선수단 입장 후 윤성욱 사무총장의 개회선언으로 본격적인 개회식이 시작됐다. 김진태 도지사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개막식이 22일 평창 모나용평 그린피아콘도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권혁열 도의장, 양희구 도체육회장을 비롯해 각 시·도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창=권태명기자

는 환영사를 통해 “동계스포츠 메카 강원자치도에 온 것을 환영한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강원 2024)의 감동과 여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뵙게 돼 반갑다”며 “앞으로 5년 연속 여러분을 맞이하게 돼 기쁘다. 편안하게 계시고 맘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가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병진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4년 만에 개회식이 열려 더욱 뜻깊다”며 “강원2024가 끝난 뒤 동계체전이 열리는 만큼 선수 여러분이 올림픽 레거시를 경험하면 경기력 면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권혁열 의장은 축사를 통해 “두 번의 동계올림픽을 성공개최한 강원자치도는 명실상부한 동계스포츠의 메카”라며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시길 바

란다”고 전했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대회에 나서는 선수들의 열정을 국민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열심히 지원하고 돕겠다. 모두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대한민국 체육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2024 남자 모노봅 금메달리스트 소재환과 여자 모노봅 최시연(이상 상지대관령고)이 선수 대표로 선수 선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개회식은 성화 점화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대회에 도 선수단은 452명(선수 286명, 임원 166명)이 나서 종합 2위를 노린다. 대회 첫 날인 22일 오후 5시 현재 도 선수단은 컬링 남자고등부에서 춘천기계공고가 2연패를 달성하는 등 금메달 13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3개, 총득점 313점으로 종합 3위를 달리고 있다. 권순찬기자 sckwon@

江原日報

2024년 02월 23일 (금)

사회 05면

“빈자리 없어요” 공공기관 ‘주차 전쟁’

강원지역 공공기관의 주차난이 장기화되며 민원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청사 주차 공간 확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22일 찾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차장. 이곳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주차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날도 강원자치도청을 찾은 차량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청사 주변을 3바퀴 이상 돌아다니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강원자치도청의 주차 공간은 지난해 853개에서 올해 847개로 축소됐다. 이 중 11.2%에 불과한 95개의 주차 공간만이 민원인전용주차구역으

청사 주차공간 턱없이 부족 주변 골목까지 불법주차 양산 민원인 과태료 처분도 ‘분통’

지자체 예산문제 증설 난색 “공무원 차량 5부제 등 추진”

로 사용되고 있다. 여권 발급과 의회 방문 등을 위해 민원인이 하루에 200~300명이 찾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4일부터 도청은 강원자치도의회 임시회 개원에 맞춰 도의원들을 위해 민

원인주차장 사용을 통제했다가 시민들에게 못매를 맞기도 했다. 도청 인근에 주차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같은 날 춘천시청과 춘천시의회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지하 1층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SUV 차량이 시의회 입구 근처 소화전 앞에 무단으로 주차해 있었으며 민원인들은 보행자 통행로에 압제 주차한 차량을 피해 걸어야만 했다.

주차장에서 만난 민원인 박규태(57·춘천시 칠전동)씨는 “민원인이 몰리는 월요일은 아예 주차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 주변 골목에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며 “오늘도 3분도 안 걸리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5분 넘게 주차장을 돌아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공간 확보 및 사업비 과다 등의 문제로 주차장 증설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주차장 증설에는 최소 수십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뿐더러 청사 주변의 잔여 공간 확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무원 차량 5부제 등의 방안을 적극 이용해 주차 부족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江原日報

2024년 02월 22일 (목)

사회

[포토뉴스]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 정기총회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1분기 정기총회가 22일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최규만 도의원, 백오인 군의원, 박순걸 횡성소방서장 등과 도연합회 김두만·종옥순 남·여회장을 비롯한 17개 시·군 남·여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을 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조원용 횡성 인재육성장학회 상임이사에게 장학금 120만원을 기탁했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23일 (금)

스포츠 23면

강원FC 시즌권 릴레이

도의회 사회문화위 동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2024시즌권 릴레이에 동참했다.

사회문화위원회와 김병지 강원 FC 대표이사는 22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실에서 ‘강원FC 시즌권 구매-기부 릴레이’ 행사를 진행했다. 정재웅 위원장을 비롯해 심오섭 부위원장, 박관희 의원, 원미희 의원, 유순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즌권 구매-기부 릴레이에 동참하며 강원FC의 선전을 기원했다.

정재웅 위원장은 “지난해 경기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올해는 초반부터 좋은 성적으로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강원FC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병지 대표이사는 “올해 초반부터 열심히 하겠다. 전지훈련을 통해 잘 준비했다. 개막전부터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원FC는 다음 달 2일 오후 4시 30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K리그1 홈 개막전을 치른다. 권순찬기자 sckwon@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3일 (금)

스포츠 22면

도의회 사회문화위, 강원FC 시즌권 구매 릴레이 동참

강원FC 내달 2일 춘천서 개막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강원FC 2024시즌권 구매 릴레이에 동참했다.

강원 사회문화위원회는 22일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와 만나 올해도 변함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강원FC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시즌권 구매 릴레이에는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을 비롯해 심오섭 사회문화부위원장, 박관희·원미희·유순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재웅 위원장은 “지난해 경기장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올해는 초반부터 좋은 성적으로 도민들에게 보답하는 강원FC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22일 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김병지 강원 FC 대표이사와 만나 강원FC 시즌권 구매 릴레이에 동참했다.

사진제공=강원FC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FC 시즌권 판매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인터파크 티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강원 FC는 내달 2일 오후 4시 30분 춘천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K리그1 홈 개막전을 치른다. 이정호

강원도민일보

“강특별 특례 기한 내 활용 모색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담긴 ‘농촌활력촉진지구’ 등 특례의 존속기한이 3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활용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원미희(비례) 도의원은 22일 제 325회 임시회 도의회 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특례가 3년 한시법인데, 그안에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며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해제가 되는 것이냐고 문의가 들어와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특별법은 농촌활력촉진지구, 환경영향평가 도지사 권한 이양 등 특례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명시했다.

이에 김상영 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도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 이전에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 추진 여부일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며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민 재산권 보호, 지역 개발 촉진 등이 목표인만큼 잘 진행될

2024년 02월 23일 (금)



원미희

김길수

종합 02면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길수(영월) 의원은 “시행령 개정 이 지연이 되면 실행단계

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개정 진행상황을 물었다. 김 추진단장은 “12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강원도에 유리한 쪽으로 협의가 진행이 됐다. 한시특례 평가과정에 강원도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인적 구성 등을 받아줬다”고 말했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4년 02월 23일 (금)

종합 02면

“올 6월 시행 강원특별법 구체적 홍보 필요”

도의회 ‘도 지원특위’ 회의

올 6월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강원특별법과 관련해 구체적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는 22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3차 개정 추진, 개정에 따른 후속 법제 추진 등의 내용을 점검했다. 이날 박대현(국민의힘·화천) 의원은 “지난해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강원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이 홍보됐지만 도민들에게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기대감만 갖게 했다고 본다”며 “도민들에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길수(국민의힘·영월) 기획행정

위원장은 “올해 전체 예산이 6억원 가량 편성됐다. 규모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고 홍보 예산 역시 1억원밖에 없다”며 “도민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등 소상히 알려야 하는데 우려된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회와는 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올해 4·10 총선이 있는 만큼 대응이 미리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관희(국민의힘·춘천) 의원은 “국회가 강원특별법 개정 등이 이뤄질 길목이기 때문에 미리 각 정당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추진단장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총선이 끝나게 되면 당선이 된 강원도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현정기자

스포츠서울

2024년 02월 22일 (목)

사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강원 산불방지 대책 본부 상설 조직으로 설치해야”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 국민의힘)은 24년 첫 임시회인 제325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에 강한 안전한 강원”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에 나서 강원형 재난의 대표적 유형인 산불에 대한 강원형 재난대응체계로서 강원산불방지대책본부 를 상설 조직으로 설치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10년간 1인당 자연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 규모가 1인당 평균 29만 6,485원으로 가장 컸다”면서 “이는 최근 10년간 100ha 이상 대형산불 대부분이 강원지역에 편중된 결과”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30년간 강원 영서와 영동의 강수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영동지역에서 급격하게 감소 함으로 인해 산불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피해면적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박위원장은 “산불은 강원형 재난의 대표적 사례이고 우리 도는 ‘강원형 재난’에 대처하는 ‘강원형 재난대응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면서 상설 강원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를 역설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화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에 의해 소방조직과 행안부에서 화재의 예방과 경계 및 진압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산불화재 만큼은 산림보호법 에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통합지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불진화업무는 소방 또는 위기대응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산불국’과 같이 산불대응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

상설 강원 산불방지 대책본부 는 김진태 지사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처음 제시된 바 있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4년 02월 22일 (목)

엔사이드

정치

박기영 위원장, “상설 「강원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주장”

김아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은 24년 첫 임시회인 제325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에 강한 안전한 강원”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에 나서 강원형 재난의 대표적 유형인 산불에 대한 강원형 재난대응체계로서 「강원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설 조직으로 설치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박위원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2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10년간 1인당 자연재해로 인한 물적 피해 규모가 1인당 평균 29만 6,485원으로 가장 컸다”면서 “이는 최근 10년간 100ha 이상 대형산불 대부분이 강원지역에 편중된 결과”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30년간 강원 영서와 영동의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영동지역에서 급격하게 감소 함으로 인해 산불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피해면적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박위원장은 “‘산불’은 강원형 재난의 대표적 사례이고 우리 도는 ‘강원형 재난’에 대처하는 ‘강원형 재난대응시스템’을 가져야 한다”면서 상설 「강원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를 역설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화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소방기본법」에 의해 소방조직과 행안부에서 화재의 예방과 경계 및 진압을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산불화재 만큼은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통합지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불진화업무는 소방 또는 위기대응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산불국’과 같이 산불대응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

상설 「강원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김진태지사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처음 제시된 바 있다

시사일보, 누리일보 등 27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22일 (목)

시사일보

전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 외출장 관련 정책반영 토론회 개최

우호 교류 협약, 드림 프로그램 참여 검토 등

전영선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책반영 토론회 개최

[시사일보=전영선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베트남 다낭시와 우호교류와 청소년 드림프로그램 참여, 계절근로자 파견 등, 도 정책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다낭시인민의회 초청으로 다낭시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1월 9일 사회문화위원회의 다낭시 방문시 양 지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다양한 논의에 대한 정책반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토론 내용은 다낭시 인민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간 우호협력관계 구축 및 다낭시 청소년들의 드림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난 간담회에서 응우옌 티 안 티 인민의회 부의장의 우호협력 제안에 따라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 및 심오섭 부위원장이 도의회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양국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은 "이번 다낭시인민의회 방문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우호 협력만이 목적이 아닌 이를 통해 문화, 사회, 관광 및 경제, 산업 분야까지 망라한 종합적인 도정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길 바라며, 토론회를 통해 협력 강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고 이러한 계획들이 강원특별자치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02월 22일 (목)

강원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 외출장 관련 정책반영 토론회 개최

최명구 ccmg0923@naver.com

우호 교류 협약, 드림 프로그램 참여 검토 등



(정도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베트남 다낭시와 우호교류와 청소년 드림프로그램 참여, 계절근로자 파견 등, 도 정책 반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다낭시인민의회 초청으로 다낭시 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4년 1월 9일 사회문화위원회의 다낭시 방문시 양 지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다양한 논의에 대한 정책반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 토론 내용은 다낭시 인민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간 우호협력관계 구축 및 다낭시 청소년들의 드림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지난 간담회에서 응우옌 티 안 티 인민의회 부의장의 우호협력 제안에 따라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 및 심오섭 부위원장이 도의회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양국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은 "이번 다낭시인민의회 방문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우호 협력만이 목적이 아닌 이를 통해 문화, 사회, 관광 및 경제, 산업 분야까지 망라한 종합적인 도정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길 바라며, 토론회를 통해 협력 강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고 이러한 계획들이 강원특별자치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명성일보 등 31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2월 19일 (월)

설악신문

정치

“집행부·의회, 존중·신뢰하며 의무 다해야”

김시성 도의원, 5분 발언 / 지방의회 견제기능 강조



김시성 도의원이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 2024년 도의회 첫 회기에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작성 발언을 했다.

지난 14일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한 5분발언을 통해서다.

김 의원은 먼저 “4선 의원으로 발언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다잡고 도민들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의결, 입법,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며 “이런 지위와 역할을 통해 견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사와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주민들을 대신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주민들이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같은 정당의 의원 중 누구보다 뼈아픈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많을수록 그 단체장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회가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청렴도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우리도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며 “의장단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정립에 있어 상호 존중과 신뢰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사께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도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를 존중하며,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길”이라며 “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때로는 서로에게 불편한 관계로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자치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힘을 모아야 하며, 그 힘은 두 기관 간의 존중과 신뢰”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 간에도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면 5분 발언을 마쳤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2024년 02월 19일 (월)

설악신문

정치

원미희 도의원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발의

지원계획·사업 등 담아...도민 삶의 질 향상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사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안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함께 일·생활균형 직장환경과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담겼다. 지원사업은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직장 컨설팅 및 교육 등이다.

지난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일·생활 균형 지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50.9점을 받아 17개 시·도 중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생활 균형 지수는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제도활용(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로 산출하며, 전체 평균은 58.7점으로 나타났다. 강원자치도는 특히 평가항목 중 지자체관심도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관련 조례와 홍보, 전담부서 부재가 주 원인으로 평가됐다.

원미희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이 이미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일이 생활보다 중요시되었던 전통적 직장문화에서 탈피하여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재환 기자 semin2748@naver.com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3일 (금)

인물 20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 정기회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한영 (태백)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도의회

江原日報

2024년 02월 23일 (금)

인물 27면

견고하고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논의

도청소년상담복지 연찬회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2일 천주교 춘천교구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연찬회’를 열고 올해 청소년 사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이상분 도여성청소년가족과장을 비롯한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내 청소년 사업방향을 공유했으며, 올해 신규 시행되는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날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장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와 제7차 기본계획’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장동현 도청소년상

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은 미래 세대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지자체와 유관기관, 시·군센터 등과의 소통을 통해 견고하고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 단 한 명의 위기 청소년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재웅 위원장은 “도의회는 윤도형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 등 다양한 소외 청소년을 살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내 5개 시·군에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분 과장은 “강원자치도는 고위기 청소년 맞춤 지원책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김오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3일 (금)

지역 17면

화천군의회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확정

군의정비심의위 40만원 인상 결정

화천군의회 의정활동비가 올해부터 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 의정활동비를 현행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화천군의회 의정활동비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는 군의회가 지난 8·9대에 의정비를 동결, 군 의정비가 도내 최저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인상 가능 전액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이날 결정된 내용을 화천군의회에 통보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면 화천군의원들은 올해부터 월 40만원 인상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 연 4018만원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된다. 안익호

江原日報

2024년 02월 23일 (금)

지역 22면

화천군의회 의정비 인상

【화천】화천군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150만원으로 인상됐다.

화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10만원에서 40만원이 인상된 150만원으로 확정했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

江原日報

2024년 02월 23일 (금)

지역 22면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 27일 개관

전국 첫 지자체 책임돌봄...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스터디카페 등 구성...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도 운영

【화천】전국 첫 지방자치단체 주도 책임돌봄 시설인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오는 27일부터 가동된다.

화천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큰 고민인 초등 저학년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립한 커뮤니티센터를 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 후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스터디카페, 실내놀이터 등 곧바로 운영에 들어가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과 영어아카데미 등은 내달 4일부터 가동된다.

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8억원 등 총 216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5,135㎡ 규모로 건축됐다.

초등학교 1~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방과 후 오후 2시30분부터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표현영어, 아



◇27일 개관하는 화천커뮤니티센터 앞에 최문순 군수가 직접 쓴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라는 표지석이 설치됐다. 화천=장기영기자

동체육, 독서+스피치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다.

커뮤니티센터 앞에는 최문

순 군수가 직접 쓴 '마음은 화천에 꿈은 세계로'라는 표지석도 설치됐다.

최문순 군수는 "커뮤니티센터는 공간통합, 스마트돌봄, 온종일돌봄, 안전이 결합된 가장 진화된 형태의 돌봄 모델"이라며 "아이들이 교육 차별을 받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등이 센터를 방문해 지자체 주도의 책임돌봄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장기영기자 kyang3276@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3일 (금)

지역 13면

강릉시청 일대 120면 규모 주차장 만든다

인근 공사로 주차난 문제 심각
시민 "주차공간 찾기 하세월"
시 주차타워 건립 등 적극 검토

강릉시청내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강릉시가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청사 내 주차 공간해소를 위해 총 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말 청사 인접 부지를 매입, 오는 5월까지 시청사 인근에 12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키로 했다.

그 동안 시청사 내 수소충전소 구축 및 미래교통융합센터 건립공사에 따라 주차공간 160여면이 줄어들면서 지속적으로 주차난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청사 앞 집회 및 기자회견이나 대규모 회의, 행사 등이 있는 날이면 시청사 입구 일방통행 도로에까지 양옆으로 차량들이 주차해 차량이 겨우 빠져나가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시민 김모(43)씨는 "행정 처리 등을 위해 시청을 자주 방문하는데 업무처리 시간보다 주차공간 찾는 시간이 더 걸릴 지경이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인 미래교통융합센터내 주차공간이 추가로 확보되면 현재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차타워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늘어날 수요에 맞춘 주차장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는 주차난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속히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구축해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최근 강릉 시청사 입구 일방통행 도로에 양옆으로 차량들이 주차해 차량이 겨우 빠져나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3일 (금)

종합 01면

의료공백 막아라...지자체-지역 의료기관 대책 마련

의료계 집단행동 나흘째 지속

강원도·시군 환자 수용 협의

보건소·의료원 연장진료 준비

중증 환자 상급병원 이송 난감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4일째 이어지자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이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

22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집계한 결과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도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총 385명 중 336명(87.2%)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한림대 82명을 비롯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시작되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의료계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아 지자체도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 4개 대형병원 외래진료가 축소되는 2단계, 개원의가 집단휴진에 참가하는 3단계가 발효되면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보건의료원이 평일 연장진료, 휴일진료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 있는 가운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명령으로 도내 5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춘천시는 인성병원 측과 협의해 23일부터 응급실 24시간 운영을 결정했다. 지난 21일에는 춘천시보건소 주관으로 국군춘천병원, 춘천소방서와 국군춘천병원 간이회의실에서 비상진료대책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일환으로 환자이송 및 수용 등을 협의했다.

원주시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수술, 입원 등의 자질이 발생할 경우 원주의료원과 성지병원 등 지역 내 의료기관의 운영시간 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금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4개 대형병원의 전공의 사직여파는 도내 지역 의료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원주의료원의 경우에는 원래 3명의 전공의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데 지난 16일부터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월의료원도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을 통해 강원대병원 전공의 1명을 받아서 교육중인 상황에서 지난 20일 교육받고 있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외래진료 연기 등 의료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중증도가 높아 여기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부분은 대책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경호·박재혁

강원도민일보

ITX-마음 승차율 저조 손실부담 우려

<태백선>

도·5개 시군 오늘 분담액 결정

지난해 9월 도입된 태백선 ITX-마음 열차의 4개월간 승차율이 65%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승차율 저조는 운영 손실 증가로 직결, 노선을 관통하는 도내 지자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한 ITX-마음 열차의 승차율은 연말까지 64.9%로 집계됐다. 이용률은 179.7%다. 이용률은 좌석을 기준으로 승객의 이용 규모, 승차율은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승객의 탑승 거리를 계산한 지표로, 운영 수익은 승차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4개월 간 65%대로 집계된 태백선 ITX-마음 열차의 승차율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그대로 강원도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도와 각 지자체가 고심에 빠졌다.

도는 ITX-마음 도입에 따른 손실비용 부담금을 연간 40억 6000만원 부담하기로 한국철도공사와 지난해 8월 합의했다. 단, 추정 연간 운송수입금 25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불해야 할 비용은 1년에 15여 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결국, 승객 수에 따라 부담금이 뛰는 구조인 셈이다.

ITX-마음의 승차율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운송수입금은 당초 예상(연간 25억원·4개월 8억 3000만원)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운송수입금이 줄어들면 도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증가한다. 더욱이 경기도 3개역사(양평·용문·양동역)는 올해 초부터 미정차하기로 결정되면서 운송수입금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는 타 지자체 노선 끼워넣기 문제는 해결했지만, 재정 부담 문제는 다시 떠안게 됐다. 이

2024년 02월 23일 (금)

종합 02면

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 경기도 지역에 가는 승객들이 많아 매진 사례가 나오는 등 강원도민들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ITX-마음 승객은 올해 1월 기준, 2만 2469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사를 경유할 당시인 지난해 12월(3만 485명)과 비교해선 8016명(26%) 감소했다. 감소한 경기도 탑승객을 강원도민 탑승객으로 채워야 예상 운송수입금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도와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동해 5개 시군은 지난해 4개월분의 손실비용 부담금의 분담액을 23일 결정한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부담금 분담 과정에 진통이 예상, 도가 한국철도공사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의 적자액이 수조원에 달해 추가적인 분담금 협의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ITX-마음의 손실비용 부담금을 지속 낮춰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

江原日報

2024년 02월 23일 (금)

종합 02면

기회발전특구 ‘그림의 떡’ 되나

강원지역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투자기업을 먼저 유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렸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시·군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했다. 특구 지정 대상과 면적, 세제 및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 지정·운영 지침 공개... 신청 앞서 기업과 투자협약 조건

9개 시·군 관심 道 대규모 투자자 확보 어려워 출발부터 난항

행정예고에 담긴 특구 지정절차에는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이전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투자 의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투자기업을 미리 확보한 지역만 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회발전특구는 661만㎡(200만평)까지 지정할 수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대형 개발사업이 가능한 대기업의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 신청 조건부터 핸디캡을 안고 출발하는 셈이다.

기회발전특구가 갖고 있는 막강한 규제, 세제 특례 등을 통해 기업을 대거 유치하려던 시·군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가능성도 커진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플랫폼이다. 지방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 특

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정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갖고 있으며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첫 번째 지정이 이뤄질 수 있다.

강원지역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해 9개 시·군이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3월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련해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 등에 대해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3일 (금)

종합 04면

강릉·동해·삼척에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전기사업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강릉·동해·삼척 등 동해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가 조성될 여건이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도와 영동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사업법 일부(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발전소가 인근 수요처에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판매(PPA)'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릉 안인화력, 동해 GS동해전력과 동서발전, 삼척 블루파워 등 인근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동해안 지역 전력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력업계는 강릉·동해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경우 40

MW급 데이터센터 기준으로 연간 100억 원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관련, 민간발전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송전제약 PPA를 매개로 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촉진 필요성과 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간발전사협의회는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을 요청했고, 산자부는 동해안 지역에 20MW 데이터센터가 50개 들어설 수 있는 규모의 1GW급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 기존 산업단지를 비롯해 잉여 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를 확정하고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인수

江原日報

2024년 02월 23일 (금)

지역 16면

춘천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유치전 돌입

【춘천】 미래 농식품 산업 선전에 나선 춘천시가 정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 경쟁에 합류했다.

춘천시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 연구·시험 장비와 시제품 개발,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시설로 푸드테크 스타트업 창업 공간도 마련된다.

정부는 전국 3개 지자체에

시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 이르면 내달 결과 발표
먹거리복합문화공간 '화동, 2571' 수탁기관 모집

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선정 시 국비 52억5,000만원 등 사업비 10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동물성 단백질을 대신할 식물성 대체 식품 분야에 도전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북 익산시, 스마트농업 기반을 다지고 있는 충북 괴산군 등과 경쟁이 예상된다. 농

식품부는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연내 공사가 시작되면 2026년 준공한다.

시는 강원대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사업 부지로 정했다. 면적 2,240㎡ 1층 건물에 식물소재 단백질 추출 장비와 대체식품 제조 장비, 분석

장비 등이 도입된다. 이성희 시 식품산업과장은 "춘천은 다양한 원료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고 바이오 등 탄탄한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연구지원센터와 연계하면 푸드테크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모와 함께 시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시는 올해 푸드테크 연구개발 지원비 5억원을 투입해 기

업 성장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위원회를 운영하며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또 먹거리복합문화공간인 '화동, 2571'을 운영할 수탁기관 모집을 다시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푸드테크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 강원대와 협약을 통해 올해 푸드바이오학과 대학원 과정을 개설했다.

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3일 (금)

지역 13면

강릉 산간지역 70cm 눈폭탄 제설작업 총력

10개 마을버스 일부 운영중단

강원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설 경보가 이틀째 발령 중인 가운데 강릉 연곡면 삼산리 등 산간지역에 70cm의 눈폭탄이 떨어졌다. 지난 21일 밤부터 시작된 눈은 밤새 퍼부어 이날 오후 5시 기준 강릉 25.3cm, 주문진 삼교리 궁궁동 30cm(주문진 15cm), 연곡면 삼산리 소금강 70cm(연곡면 23cm), 성산면 69.2cm, 북강릉 25.3cm의 적설을 기록했다.

밤새 내린 눈으로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다. 강릉소방서와 시에 따르면 연곡면과 구정면을 중심으로 수목 및 전신주 전도 8건 이상, 낙상사고 4건, 교통사고 3건 등이 발생했고, 70cm의 눈폭탄이 내린 연곡면 삼산2리 일원 80가구 정전이 발생해 긴급작업을 벌였다. 특히 이번 눈은 물기를 머금은 습설인 탓에 산지 중심

도로 곳곳 수목전도가 다수 발생해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주문진버스터미널~궁궁동, 강동무료주차장~옥계현내시장, 연곡면사무소~송천중점 등 총 12개 마을버스 노선 일부 구간 운영이 중단됐다. 왕산면 안반데기 길은 지난 20일부터 통제된 상태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평소보다 늦어지는 대중교통을 기다리며 발을 굴렀고,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들은 '거북이 주행'을 하면서 평소 이동간 10분이 소요되는 구간을 30분 이상 걸려 이동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상향, 직원들을 대거 투입해 25개 주요 노선 등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10~30cm, 동해안 5~15cm, 내륙 2~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연제

江原日報

2024년 02월 23일 (금)

지역 19면

사흘간 50cm 폭설 ... 인력 550명 투입

속초시 제설과의 전쟁

【속초】속초지역에 사흘간 5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속초시가 '제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22일 설악동 B지구에서 소공원으로 가는 노루목고개 제설작업을 위해 시내버스를 제외한 일반인의 차량 진입이 통제됐다. 이날까지 폭설에 따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요 도로와 인도, 버스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이 이뤄지며 도심 이면도로와 골목길의 눈이 치워지지 않아 보행 등에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졌다.

속초시는 공무원과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자율방재

설악동 노루목고개 통제

주요 도로 소통에 만전

재난안전본부 가동·점검

단 등 550명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펼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눈이 집중적으로 내린 설악동 등에는 마을·동 제설단을 운영하는 한편 36대의 제설장비를 투입해 주요 도로와 간선도로의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린 설악동에는 제설장비 12대를 추가로 투입했으며, 불법주차차 집중단속 및 공영주차장 완전 개방 등을 통해 시내 주요 도로 제설



◇22일 많은 눈이 내린 속초 설악동 화채마을 일대에서 시청 공무원들이 쌓인 눈을 헤쳐가며 인도 위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밤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기상 및 피해상황 관리, 재해취

약지역 현장점검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이병선 시장은 "전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

작업을 벌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3일 (금)

사회 05면

'허리까지 쌓인 눈' 산간마을 고립·도로 통제 속출

강원도 70cm 눈폭탄

고성 향로봉에 70cm에 달하는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산간마을이 고립되고, 눈길 교통사고와 더불어 무거운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나무들이 쓰러져 길을 막는 등 사고가 속출했다.

■ 제설작업 총력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강원도내 누적 적설량은 강릉(성산) 69.2cm·인제(조침령) 67.5cm·양양(영덕) 57cm·양양(오색) 55.8cm·강릉(왕산) 54.3cm·대관령 47.9cm 등이다. 특히 영동과 산지를 중심으로 70cm 가까이되는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지자체는 중장비와 제설차량을 이용해 도로의 눈을 치웠다. 또 집 앞을 뒤덮은 눈에 고립된 산간마을 주민들은 쌓인 눈을 하루 종일 파낼었다. 많은 눈이 내린 고성 흘리의 한 마을은 집 마당이 눈으로 뒤덮이면서 차량의 와이퍼만 눈에 파묻혀 간신히 모습을 보였다. 고성 흘리 주민 A씨는 "허리까지 내린 눈을 치우느라 어제부터 계속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일까지 눈이 계속 온다고 하니 작업을 멈출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지와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자 22일 오전 9시부터 재대면비상 2단계 확대 운영



21~22일 강설에 따른 고성 간성읍 진부령 흘리 마을의 적설량이 80cm를 기록한 가운데 22일 오후 주차된 차량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와이퍼만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고성군

설악산·오대산 등 탐방로도 차단

눈길에 버스노선 우회·단축 운행

수목 전도·교통사고 등 총 95건

오늘 영동·산지 5~10cm 더 내려

에착수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이날 제설장비 3245대와 인력 4099명, 제설제 1만9358t을 투입

해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제설장비를 도로공사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각각 추가 지원받아 투입하기도 했다. 동해안의 2479척의 여선도 안전조치된 상태다. 또 현재 3곳(강릉 1·고성 2)의 도로는 통제됐다. 춘천 9곳, 강릉 6곳, 삼척 14곳, 홍천 7곳, 영월 1곳, 평창 3곳, 정선 4곳, 인제 4곳, 고성 1곳 등 49곳의 버스노선은 현재 눈길로 인해 단축 운행을 하고 있고, 삼척의 1개 노선은 현재 우회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이날 원주에서 제주로 향하는 노선은 1회 결항했지만 정상 운행이 가능해졌다. 설악산과 오대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 72개 노선은 통제됐다.

■ 사고 이어져

폭설로 인한 사고도 속출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6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폭설로 인한 소방활동은 총 95건으로, 5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교통사고가 45건으로 제일 많았고, 수목 전도 등

생활안전활동이 39건으로 뒤를 이었다. 22일 오전 10시 4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 정상에서는 3명의 등산객이 고립돼 6시간 만에 구조됐다.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22일 오전 9시 15분쯤 화천군 간동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5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지난 21일 오후 10시 27분쯤 정선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차량 단독사고가 발생해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날 오전 8시 38분쯤 화천군 사내면에서는 SUV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1t 트럭과 부딪혀 4명이 이송됐다. 이날 오전 3시쯤 삼척시 도계읍에 사는 소나무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2시간 가량 정전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 23일까지 눈 예보

눈은 23일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23일까지 강원 산지와 영동을 중심으로 5~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눈이 그친 후 주말간 아침 기온이 영서와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권 날씨를 보여줄 것이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6~-2도, 영동 -4~-1도며 낮 최고기온은 영서 -2~-6도, 영동 -1~3도다. 오는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7~-2도, 영동 -4~-1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4~-7도, 영동 -2~4도가 되겠다.

신재훈·지역종합

江原日報

2024년 02월 23일 (금)

종합 01면

69cm 폭설에 ... 정전·고립·낙상·교통사고 속출

하늘길 막히고 도로 통제도
재난안전본부 2단계로 격상

22일까지 강원지역에 최대 69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 관련기사 18·19·21면

22일 새벽 1시께 양양군 손양면 남양리의 양돈단지에서 폭설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다. 군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벽 3시께 긴급복구 및 제설을 마쳤다. 이어 새벽 4시 32분께는 홍천군 서면 동막리에서 소나무가 쓰러지며

고압선이 단선, 이 일대가 2시간여 동안 정전됐다. 폭설로 인한 피해는 강릉과 삼척, 양양에서도 잇따랐다.

오전 10시 4분께에는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 정상에서 등산객 3명이 폭설에 고립됐다가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6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21~22일 이틀간 폭설로 인해 강원자치도 내에서 95건의 구조·구급 요청 등이 들어왔으며 1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눈길 고

립·낙상 11건, 안전 조치(수목 전도 등) 39건이다.

폭설과 기상악화로 인해 일부 도로와 교통편이 마비되기도 했다.

22일 원주공항의 제주행 항공편 2편(출발 1편, 도착 1편)이 결항했다. 강릉 안반데기길 4.6km 구간, 고성 대진리-마달리 2.3km, 군도 11호선 구성리-담동리 2km 구간이 통제됐다. 이밖에도 49개의 버스 노선이 단축 운행됐고, 국립공원 탐방로 72곳도 출입이 금지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4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누적 적설량은 강릉 성산 69.2cm, 조침령 67.5cm, 삼당령 61.4cm, 북강릉 25.3cm, 강릉 연곡 23cm, 평창 대화 13.4cm, 화천 사내 13.3cm, 홍천 시동 13cm였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린 영동지방은 23일까지 약 5~10cm의 눈이 더 쏟아져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강원자치도는 22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김준겸·박서화·최영재 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3일 (금)

사설/칼럼 19면

청탁 채용비리 경종 울리길

-강원랜드 관련 민사 최종 패소, 인사 부정없어야

강원랜드하이원리조트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청탁 채용비리 사건이 11년 만에 종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서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이유로 인해 해고된 직원 중 70여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1,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기각했습니다. 강원 최악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 관련 민사소송이 종료된 것을 계기로 특히 공공부문에서 인사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2013년 강원랜드에서 두차례에 걸쳐 518명의 하이원 교육생을 선발하는 채용과 관련해 비리 연루 교육생 숫자는 무려 200여명으로 확인된 강원 최악의 채용비리 사건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주장했으나, 1·2심과 대법원 상고심 모두 채용 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 측에서는 이 사건으로 사장은 징역형을, 담당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과 인사팀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언도됐으며 채용을 청탁한 경우도 형사 처벌됐습니다.

2013년의 교육생 채용은 2016년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문제가 제기됐고 2018년에서야 관련 직원의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대규모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하기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위층이 주도한 비리로 인한 잘못으로 인생의 중요시기인 청년 피해자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입니다. 각종 형사, 민사 재판을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은 사회적 손실입니다.

공기업 기관장은 감시와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정부, 지자체, 정치계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경영 태도를 저버리면 강원랜드 비리 사태와 같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형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사 공정성, 객관성, 개방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청탁을 통해 취업한다면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입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기관장의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위직일수록 원칙과 공정성을 철저하게 지켜 윤리성에 훼손이 없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2월 23일 (금)

사설/칼럼 19면

강원 자영업 16만명 붕괴... 대책 없나

-고금리·고물가에 소비 감소, 회생 방안 절실

강원지역 골목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해 비용이 치솟는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여기에 소비심리까지 악화해 영업 손실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정 경제의 위축이 자영업에 한파로 전이되는 양상입니다. 자영업의 쇠퇴는 강원 경제 전체에 좋지 않은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는 강원지역에 자영업마저 힘을 잃는다면,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와 지자체는 이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업계의 생존 환경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강원 도내 자영업 실태는 점차 회복하고 있는 고용 현황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통계청이 공개한 '2024년 1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을 보면 강원지역 고용률은 56.7%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취업자는 75만 5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기타가 2만 8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제조업이 900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 부진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각각 1만 2000명, 2000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과 관련한 통계는 지역 경제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침체로 인해 강원지역 자영업자 수는 15만 9000명으로 16만명대가 붕괴됐습니다. 도내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17만명 대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4월 20만 4000명부터 20만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자 지난해 말 16만 6000명으로 추락했고, 올해 1월의 경우 2011년 2월 15만 5000명 이후 약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과도 대조를 보입니다.

자영업자 16만명 선 붕괴는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가정 경제가 악화하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업계의 경영부실을 초래합니다. 경제 악순환의 사이클이 우려됩니다. 향후 경기 전망도 불투명해 악재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길 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고금리·고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23일 (금)

사설/칼럼 25면

與 도내 경선, 정책·비전으로 당당하게 경쟁해야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경선 승리를 위한 여당 주자 간 도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춘천갑과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경선을 결정했다. 강원 지역구 공천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던 춘천갑은 비례대표 현역인 노용호 국회의원과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2인 경선을 하게 됐다. 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과 최순극 전 강릉대 총학생회장, 강대규 변호사, 조백송 전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컷오프’(공천배제) 됐다.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서는 4선에 도전하는 한기호 의원과 이만찬 당 상근대변인, 허인구 전 G1방송 사장이 3인 경선을 펼친다. 공천

을 신청했던 변지량 전 강원특별자치도 도민특별자문관은 ‘컷오프’ 됐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뜨거운 열기에 상응하는 경선의 품격을 보여 줘야 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누워 침 뱉는 저질 경쟁이 아닌 정책과 비전으로 우열을 가리도록 해야 한다. 나라와 지역을 발전시킬 능력을 보여 주기보다 상대 험담이나 늘어놓는 인신공격으로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등 접경지역은 온갖 규제로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주민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접경지역은 북한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을 말한다. 1953년 휴전 후 설치된 육상의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서로 접해 있는 곳이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 통제선과 거리 및 지리적 여건, 개발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접경지역은 국토의 중심지대에 있음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적인 대치와 안보의 필요성에 의한 엄격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낙후’라는 오명을 쓰고 7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군부대가 해체되면서 지역 상권은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

접경지역의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주민이 지역을 이

탈하면서 접경지역 상권은 존폐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황폐화되고 있다. 접경지역에 산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유치해 활력이 넘치도록 해야 한다. 성장의 발판을 마

춘천갑, 춘-철-화-양을 본선행 가려

접경지역 규제로 개발 난제·주민 삶 하락

이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 제시해야 주민 공감

련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경선 승리를 위해 여당 주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당당하게 경선에 임해야 한다.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진행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앞서 원주갑(박정하 의원), 원주을(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 홍천-횡성-영월-평창(유상범 의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철규 의원·장승호 당 중앙위 건설분과 부위원장 경선)의 공천 심사를 완료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네거티브로 흘러가는 공천 과정을 지켜보며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주자들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빨셈 경선’을 지양하고 어떤 나라와 지역을 만들고 싶은지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江原日報

2024년 02월 23일 (금)

사설/칼럼 25면

외국 관광객 찾지 않는 관광, 경쟁력 키워야 할 때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고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하며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고 있다. 도버스운송사업조합 집계 결과 2023년 도내 터미널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노선의 왕복 이용객 수는 6만3,540명이다. 2022년(1만6,262명)과 비교해 무려 290%가 치솟았다. 도내 터미널 중 공항버스 수요가 가장 많은 춘천~인천공항 노선 이용객 수가 제외된 수치임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여행은 강원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급증하는 추세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에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난 일평균 이용객 수(19만5,384명)가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53.2%나 많아졌다.

문제는 불어나는 해외여행객 수에 비해 외국 관광객의 방문은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행수지는 만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며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큰 미래형 성장 산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행수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여행수지는 125억달러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50%(83억달러)나 늘어나

며 2018년(165억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묶였던 해외여행 규제가 풀렸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국내 관광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2015~2019년에는 적자액이 5년 연속 100억달러를 넘었다가 2020년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8억달러로 낮아졌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여행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21년까지만 해도 한 해 852억달러 흑자를 냈지만 지난해 354억달러로 격감했다. 게다가 여행수지 적자는 소비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내수경기 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는 여행수지 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외국인 방한객에 비해 기형적으로 많은 해외여행객 행렬은 결코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여행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하지 못하고 숙박비와 식사비가 턱없이 비싸다. 대부분의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한국은 생소하고 국내 여행지 정보도 부족하다. 내국인 여행자들도 “국내에 갈 만한 곳이 없다”며 해외로 떠나고 있다. 관광의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할 때다.